

미국 버디친구들과 함께하는

아이타호 ESL 영어캠프



미국 아이다호 ESL 영어캠프

글로벌 리더의 토대가 될 영어 실력 향상과 현지 문화 체험을 한번에!

UNIVEST SUMMER ESL CAMP



또래 미국 친구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ESL수업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엄선된 자원봉사 홈스테이



재미는 기본! 배움과 채움을 더하는 현지 체험 액티비티



미국 현지 체험 100% Real American Culture



미국 동부 시티 투어 & IVY 리그 대학 탐방



출국 전, 중, 후 걱정 Zero 밀착 관리 시스템

캠프모집안내

캠프기간	2026년 7월 20일 (월) ~ 8월 14일 (금)
캠프장소	미국 아이다호 주 주거 중심 도시 소재 명문 크리스천 사립학교
캠프대상	초등학교 2학년 ~ 중, 고등학생
참가비용	1,030만원 (항공료 별도)
숙박형태	엄선된 현지 중산층 자원봉사 홈스테이

- 캠프 지역 및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캠프 비용은 급격한 환율 상승이 있는 경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캠프 비용은 수업료, 액티비티 및 Excursion, 입장료 및 교통비, IVY 투어 참가비, ESTA 신청비, 여행자보험, 숙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SCHEDULE 상세 일정

SUN	MON	TUE	WED	THR	FRI	SAT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인천 출발 미국 도착 호스트 가족들과 첫 만남	영어수업 Shopping Mall	영어수업 Blue Zoo	영어수업 Flying Squirrel	영어수업 McEen Field 다운타운 투어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영어수업 Wallace Mine Tour	영어수업 Police Station	영어수업 Cat Trails	오전 영어수업 Southside Family Aquatics	종일 액티비티 Camping 체험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영어수업 Couer Climbing	영어수업 Triple Play	종일 액티비티 Silverwood Themepark	영어수업 Farewell Party 준비	영어수업 수료식 Farewell Party	동부로 이동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아이비리그&동부 투어



현지 출발

인천 도착

• 상기 일정은 샘플일정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WEEKLY PLAN

현지 생활 미리 보기

Regular day (Sample)

현지 버디 친구들과 함께하는 종일 ESL Class



9:00AM - 12:00PM
ESL Class

12:00PM - 1:00PM
Lunch

1:00PM - 4:45PM
ESL Class

Activity day (Sample)

현지 버디 친구들과 함께하는 ESL Class + Activity



9:00AM - 12:00PM
ESL Class

12:00PM - 1:00PM
Lunch / 오후 Activity

1:00PM - 4:45PM
Lake Coeur d'Alene

All Day Activity day (Sample)

현지 버디 친구들과 함께하는 종일 Activity



9:00AM - 12:00PM
Real Camping

12:00PM - 1:00PM
Lunch

1:00PM ~
Real Camping

*상기는 샘플 일정이며 현지사정에따라 변경될수있습니다.

TOUR SCHEDULE 투어 상세 일정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 + 동부 시티 투어

8월 9일(일)

Yale University, 보스턴 시티 투어



8월 10일(월)

Harvard University, MIT



8월 11일(화)

Princeton University, UPenn



8월 12일(수)

뉴욕 시티 투어



8월 13일(목) - 14일(금)

현지 출발
—
인천 도착



• 상기 일정은 샘플일정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LOCATION 캠프장소

아이다호 Idaho

천혜의 자연을 사랑하는 The Gem State(보석의 주)

아이다호 주는 인구는 백만 명 가량이고, 이중 약 90%가 백인이며 한국인은 약 1,6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저 수준의 한국인 비율과 백인 위주의 주이기에 슬랭이나 강한 억양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며, 미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캠프가 진행되는 곳은 소도시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감 있습니다. 여름, 겨울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며 미 서북부 최고의 절경으로 유명한 코들레인 호수를 인근에 두고 있는 헤이든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너무나 안전하여 밤 늦게 야외활동을 하여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학교 소개



Christian Center School

설립년도: 1979년

학년: PK-12

총학생 수: 300여 명

소개: 아이다호주 헤이든에 위치한 오랜 전통의 명문 크리스천 사립학교



*상기 학교는 샘플 학교이며 이외 더 많은 학교들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URRICULUM 커리큘럼

미국 사립학교 교사가 직접 가르치며 영어 4대 영역을 아우르는 ESL수업
정규수업과 더불어 영어 사용 극대화!



Spe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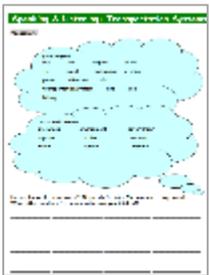
Listening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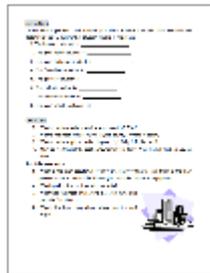


Writing



Speaking

매 Lesson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버디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적극적인 학생들은 물론, 소극적인 학생들도 버디 친구들이 눈높이에 맞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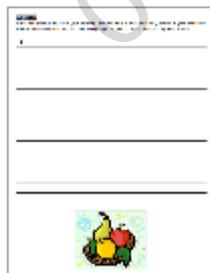
Listening

대화를 주고 받으며 들은 내용들을 직접 적어보며 듣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버디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말하는 속도도 적절히 조정해주며,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줍니다.



Reading

매 Lesson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룬 짧은 혹은 긴 Reading 구문이 주어지며, 만약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옆에서 버디 친구들이 알려주어 각자의 수준 별로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발음을 교정하는 역할까지 가능합니다.



Writing

Reading과 연계하여 구문을 읽은 후, 단문 혹은 장문의 Writing을 할 수 있어 쓰기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버디 친구들이 학생의 수준에 맞는 영어식 표현과 단어를 사용하여 Level에 맞는 최대한의 문장을 쓸 수 있게 지도합니다.

OUTDOOR ACTIVITY

아이다호 ESL 영어 캠프만의 장점! Original American Outdoor Activity!
천혜의 자연 아이다호에서 몸으로 배우고, 함께 도전하며, 경험으로 성장합니다



*상기는 샘플 사진이며 캠핑은 현지 사정과 날씨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 취소 될 수 있습니다.

HOMESTAY 홈스테이 소개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이 되어 주실 홈스테이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엄선된 홈스테이입니다. 홈스테이 선정 시, 본사와의 긴밀한 협력 및 협의 하에 자원한 학교 학부모와 관계자들 중에서 선발하게 되며 현지 학교 담당자 방문 인터뷰, Background check 등 면밀한 검증 절차를 걸쳐 선발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적응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자상한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며 소중한 가족이 되어 줄 가정들로 엄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등, 하교는 물론, 다양한 현지 가족 문화 (생일파티, 캠핑, 주말 야외활동)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문화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캠프 경험자들이 앞다투어 미국영어캠프의 최대 장점으로 손꼽아 이야기 하는 홈스테이는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자랑 거리입니다.

> 홈스테이 후기

여름방학 미국캠프 참가자 최O령 학생



"이 캠프는 나에게 앞으로 절대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들을 남겨주었다. 특히 미국에 도착해 호스트 가족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들이 보여준 미소를 앞으로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동안의 걱정은 정말 시간 낭비였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다. 나를 아무 조건도 없이 받아주신 호스트 가족들을 나는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고, 그들과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겨울방학 미국캠프 참가자 권O민 학부모님

"이번 캠프를 함께 하지 못했다면 후회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현지 호스트가족과의 생활은 O민이에겐 언어의 장벽이 무색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O민이는 지금도 호스트가족이 주신 사진과 버디친구의 손편지를 보고 안부를 묻습니다. HOME SICK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 따뜻하게 보듬어주신 호스트 가족들은 영원히 저의 가족과 친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캠프 시작 전 미팅에서 아이들을 믿고 지켜봐 주시고, 좋은 호스트가족과 잘 지내고 돌아올 것이라고 안내하신 부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O민이와 저는 다음 캠프도 망설이 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042-488